

광양시장

무소속-민주-국민의당 경쟁 치열

광양시장 선거는 재선 도전에 나서는 무소속 현직 시장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이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현복 광양시장, 김재무 전 도의원, 김재휴 전 부군수, 남기호 전 시장

그동안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시장을 선출했던 광양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무소속 시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사활을 걸고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다른 지역과 달리 본선에서의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현복(67) 현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선다.

신안 부군수, 전남도청 공보관 등을 역임하는 등 전통 공로 출신인 정 시장은 시민 소통 행정을 펼친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재임 기간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비록한 문화·예술·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다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재무(57)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김재휴(63) 전 보성 부군수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장은 지난 선거에서 정 시장에게 석패한 뒤 외신상당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 전 부군수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재선 도의원의 조상래 전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 등이 공천장을

받았다. 김 전 의장은 광양시의외 의장과 전남도위원을 거치는 등 의정경험과 인지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평가다.

이밖에 이정무(62) 전 광양시의외 의장 등도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담양군수

최형식 군수 출마 여부 최대 관심사



최형식 담양군수, 박철홍 도의원, 박군조 전 교육위원장, 최화삼 이사장, 전정철 도의원, 신동호 전남대학교수

담양군수 선거는 최형식(62) 군수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최 군수는 2002년 민선 3기 군수에 당선됐으나 2006년 재선에 실패했다. 이후 민선 5기와 6기 군수에 연거푸 당선돼 세번째 군정을 이끌고 있다. 내년 선거에 나설 경우 4선 도전인 셈이다. 최 군수는 세계대나무박물관 등을 통해 관광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불신과 최측근 구속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3연속 군수 입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 군수의 대항마로 민주당 내에서는 박철홍(57) 전남도의원, 박군조(60) 전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장, 최화삼(63) 담양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전정철(60) 전남도의회이 되고 있고, 신동호(61) 전남대 교수는 무소속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철홍 의원은 민선 3기 담양군수 비서실장을 거쳐 현재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군조 전 원장은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쌓아온 인맥과 전문성이 두드러진다. 최화삼 이사장도 탄탄한 밑바닥 조직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보이면서 보복을 넘겨가고 있다. 전정철 의원은 풍부한 지방자치 경험을 내세우며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선 직전 민주당을 탈당한 정력이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호 교수는 대학 행정 및 교육·농업·축산·수의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직이 강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장성군수

유두석 군수-윤시석 도의원 양자대결

이번이 없는 한 유두석(67) 현 군수와 민주당 윤시석(57) 전남도의원의 양자대결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지방선거에 장성군수 후보로 나선 유두석은 지난날 여론조사를 통해 윤도위원이 지난달 여론조사를 통해 윤도위원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무소속인 유 군수와 민주당 윤도위원의 대결이 가시화됐다. 하지만, 이준호 전남도위원과 김재환 장성군의회 의장 등도 지역에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장성에서는 보궐선거를 포함한 6선의 군수 선거 중 무소속이 3차례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야권 상황에 따라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측이다.

특히 장성은 민주당 내 광주·전남 유일의 현역인 이계호 국회의원의 지역구여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기세가 이어질지도 관련 포인트다.

하지만, 재보선을 포함한 과거 6차례 군수 선거에서 세차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에서 장성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무소속인 유두석 현 군수는 국토교통부 관리 출신이라는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유두석 장성군수, 윤시석 도의원

로 안정적으로 군정을 이끌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책사업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에 노력하는 등 지역 현안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도의원 3선인 윤 의원은 도의회 부의장과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여러 상임위원장을 지내며 지방자치와 행정역량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의원 3선을 하면서 지역 내 인지도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호남고속철도의 장성역 경우와 교육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등 지역 현안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곡성군수

유근기 군수 재선 도전에 4명 출사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유근기(54) 곡성군수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이에 맞설 후보군으로는 4명이 거론되고



유근기 곡성군수, 김광동 혁신센터PD, 강대광 군의원, 이영진 심정축제장, 조상래 도의원

있다. 김광동(57)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PD, 강대광(53) 곡성군의원, 이영진(63) 곡성 심정축제추진위원장, 조상래(59) 전남도의원 등이다.

유 군수는 탁월한 균형 성과를 내세우며 재선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해 개봉한 스텔러 영화 '곡성'이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긍정적 역할상'을 통해 곡성군을 전국의 명소로 널리 알렸다. 그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은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수상이라는 영예로 돌아왔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인 '100원 택시'와 '1000원 버스'는 전국적으로 도입되며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합리적 성품으로 지난 선거 후 갈라진 지역 민심을 재배르게 수습하면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광동 PD가 유 군수에

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PD는 전남대 경영연구소 연구원과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국민의당에서는 재선 도의원의 조상래 전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이 공천장을 획득하기 위해 폭넓게 뛰고 있다. 예결위원장 등 도의회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역량을 쌓았고, 곡성군의회를 역임해 지역 현안에도 밝다. 한국청년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교성과 친밀감을 무기로 지역민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3선의 강대광 곡성군의회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밑바닥 정서를 끌어안고 있으며, 이영진 심정축제추진위원장은 국민의당 곡성지구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경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구례군수

인구 적어 혈연·지연 조직력 승패 가를 듯



이창호 도의원, 최성현 전구례부군수 발전포럼대표, 왕해진 김순호 비서실장, 박인환 전도의회 의장, 전경태 전 구례군수

구례군수 선거는 서기동 군수가 3선을 끝으로 물러나게 돼 후보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인구가 3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 특색상 혈연·지연 등 조직력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 보니 토박이들이 후보군으로 포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세력도 팽팽하다.

민주당에선 이창호(54) 전남도의원, 최성현(62) 전 구례부군수, 왕해진(54) 구례발전포럼 대표, 김순호(55) 구례군수 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박인환(66)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전경태(69) 전 구례군수가 뛰고 있다.

농업인 출신의 이창호 의원은 구례군의 원·전남도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구례군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농민운동을 하며 지역사회와 밀착해 호흡해 왔고, 지역 현안에도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 전 부군수는 전문성이 단연 돋보인다. 전남도 주요 보직을 거치며 행정역량을 쌓은 등 산적한 현안의 돌파구를 뚫을 적임자임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군수 권한대행으로써 위기 대처 능력을 인정받았다.

왕해진 구례발전포럼 대표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균형발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앙인맥을 쌓았다. 산동·간전·마산면장과 군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순호는 구례군정에서 전배가 굵어 바닥 인심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박인환 전 의장은 추진력이 발군이다. 정계를 비롯한 각계 인맥은 후보군 중 단연 앞선다는 평가다. 2차례 군수를 지낸 전경태 전 군수는 풍부한 균형 운영 경험을 앞세워 재기를 노리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구례=이진택기자 jit@kwangju.co.kr

고흥군수

민주당 경선에 5명 몰려... 국민의당 1명 출마



공영민 정책위 부의장, 김경명 전 경찰서장, 류형석 총리실 국장, 송형곤 도의원, 장세선 군의원, 송근두 전광주부시장

고흥군수 선거전은 벌써부터 뜨겁다. 박병중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흥군수 선거는 본선보다는 당내 경선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아직 선거가 8개월 넘게 남았지만 입지지만도 벌써 6명이다. 이 중 5명이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을 놓고 공영민(63)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경명(64) 전 고흥경찰서장, 류형석(57) 국무총리실 국장, 송형곤(54) 전남도의원, 장세선(63) 고흥군의원 등이 예열에 들어갔다.

2번째 도전장을 내민 공영민 부의장은 민주당의 정책브레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23년간 근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획관리실장·제주발전연구원

장을 역임한 행정의 달인이다.

김경명 전 경찰서장은 경찰 인맥과 경주 김씨 문중을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번이 3번째 군수 도전이다.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 합격해 청와대·전남도청 등에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김대중 정부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류형석 전 국무총리실 국장도 탄탄한 중앙 인맥을 앞세워 공천장을 거머쥘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형곤 도의원과 장세선 군의원은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국민의당에선 송근두(61)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뛰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도전해 1412표 차로 석패했던 송 전 부시장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쌓아온 행정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보성군수

현직 프리미엄 없어 후보들 각축전 치열할 듯

보성군수 선거는 의외로 뜨거워지게 됐다. 이용부(65) 보성군수가 초선의 현직이지만, 수사와 재판을 반복적으로 거치다가 결국 구속되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용부 보성군수, 김철우 전 군회의의장, 강복수 군회의의장, 하승완 전 군수

이 군수는 지난 13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균형 초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홍역을 치르다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택 신축 과정 등에서 불법행위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오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과정에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져 결국 구속됐다.

재임 기간 내내 수사와 재판을 반복하다 구속되면서 지역민심은 급격히 멀어졌다. 이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하며 뜻을 보이고 있다. 이 군수가 구속되면서 보성군은 사실상 무주공산이 됐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3선 군의원으로 보성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철우(53) 추미애대표 후보 특보가 한발짝 앞서 뛰고 있다.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김 특보는 군의원 3선을 거치면서 다진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당내 입지도 탄탄하다. 1987년 평화민주당 입당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탈당하지 않은 정통 민주당원으로, 당에서 호남특위 위원·정책위 부의장·대표 호남특보 등 중책을 맡고 있다.

강복수(57) 보성군의회 의장은 민주당 공천장을 희망하고 있다. 강 의장은 주민 중심의 의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충효대상을 수상했다.

2차례 보성군수를 지낸 하승완(66) 전 군수는 국민의당 간판을 달고 열심히 바둑 마음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세력이 여전한데다 균형 경험 등 관록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화순군수

전·현 군수 맞대결 가능성... 벌써부터 '불꽃'

구홍곤(59) 화순군수가 재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전 군수와 전 전남도위원들의 거센 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군수의 맞대결 가능성도 관련 포진한다.



구홍곤 화순군수, 임호경 전 화순군수, 민병홍 도의원, 구복규 전 도의원

민주당에서는 현직 구 군수에 맞서 구복규(62) 전 전남도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구 군수는 모처럼 군정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 군수 이전 10여년 간 4명의 군수가 줄줄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면서 3차례의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등 초처럼 군정이 안정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구 군수 취임 이후에는 큰 탈 없이 군정이 이뤄졌다. 전남도위원과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구 군수는 중앙은 물론 정계·재계·문화계를 막론하고 탄탄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둑한 배경과 독심, 의리를 가졌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평가다.

구복규 전 전남도위원은 지역에서의 오랜 정치생활을 통해 조직력과 인지도도 상당 부분 갖췄다는 평가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에서는 임호경(65)

전 군수와 민병홍(57) 전남도위원의 도전이 점쳐진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 화순지부장과 전남도위원을 지낸 임 전 군수는 풍부한 선거 경험과 탄탄한 풀뿌리 조직이 강점으로 꼽힌다.

현재 화순변영회장을 맡아 바다 민심을 다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인 이영남 전 군수와 함께 이른바 '부부 군수'라는 점과 과거 군수 선거에서 전형 전 군수 집안과의 싸움으로물고 간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현직 구 군수와 임 전 군수가 본선에서 맞붙을 경우 전·현직 군수 대결과 함께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라는 점에서 양 당 간의 불꽃 튀기는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수

김성 군수 재선가도에 입지자 6명 도전장

김성(58) 장흥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현직 프리미엄에 여당의 조직력, 단체장 첫 복당이라는 날개를 달아 재선가도를 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 장흥군수, 박병동 전 여수시장, 조재환 사무관, 사순문 전 보좌관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무소속으로 군수에 출마해 낙선한 뒤 2007년 재선거에서 또 낙선했다. 이어 2008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율 10% 격차를 뒤집고 군수에 당선되는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

김 군수에 맞서 민주당 당적으로 3~4명의 입지자가 뛰고 있다. 장흥·화순·나주·여수 등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박병동(61) 전 여수경찰서장이 화려한 경력과 두터운 중앙 인맥을 내세우며 보복을 넓히고 있다. 9급에서 사무관까지 30여년간 장흥군정에서 근무한 조재환(58) 후보도 "이런 누구보다 장흥군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 공천경쟁에 뛰어

들었다. 2차례 지방의원에 도전해 실패한 사순문(61) 전 통일부장관 보좌관도 이번엔 군수를 바라고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국민의당에서는 정중순(62) 전 농협중



정중순 전 농협본부장, 김상국 전 국장, 신재춘 도 중기과장

양회 광주본부장이 재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 농협인 경력을 앞세워 농어민과 여성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다.

서울시 광진구청 국장을 역임한 김상국(62) 씨도 국민의당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신재춘(59)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풍부한 공무원 경력을 내세우며 얼굴을 알리는 등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 jw@kwangju.co.kr